

권오상 개인전에 부처

글. 김인선

‘사진 조각’이라고 불리고 있는 권오상 작가의 작업은 대상이 정해지면 우선 만들어질 작품의 크기를 위한 기초 작업을 하는데 그 기초 작업은 육면체 덩어리 형태의 스티로폼을 대상의 모양으로 깎아내는 온전히 전통 방식의 조각 과정이다. 그 표면이 사진으로 뒤덮여지는 과정을 위하여 대상의 비율과 부피가 꽤 정밀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깎는다. 그 다음은 그 표면의 레이어를 위한 또 한 번의 노동이 진행된다. 그것은 사진을 찍어서 잘라내는 작업으로 대상의 360도 모든 이미지를 담기 위하여 촬영한 수백 장의 사진이 그 표면으로 옮겨지기 위하여 재단된다. 등신대 혹은 등신대보다 좀 더 큰 크기의 입체 조각된 덩어리를 뒤덮은 평면사진이 재현적 부피를 추가로 획득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모든 면을 놓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구석구석 찍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을 시작으로 권오상 작가는 끊임없이 대상을 가장 사실적이고 정확히 잡아낼 수 있는 매체인 사진으로부터 생산된 평면 이미지를 조각이라는 입체적 표현 속으로 수용해 내는 다각적인 방식을 시도해 오고 있다.

이 작업의 시작은 대학 시절 어떻게 하면 가벼운 조각을 다룰 수 있을지, 또한 빠른 속도로 많은 작업이 가능할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기인하였다. 그의 첫 전시인 대안공간 루프에서의 1999년 <진공포장>에서 보여준 작가의 작업 결과물은 요즘 보여주는 앞서 설명한 과정의 사진 조각의 형식에서 얻어지는 외관의 섬세함이 드러나는 외형은 아니었다. 사진이라는 재현성에서 오는 사실적 이미지는 권오상이 구현하는 덩어리 위에서 서로의 이미지 조각을 둔탁하게 맞춰 들어가면서 어긋나고 뺄어져 있었다. 지금의 사진 조각에 비하면 그 큼직한 패치가 투박하고 어긋나면서 평면과 입체의 조우가 만만치 않은, 일종의 충돌처럼 보이기도 해서 그 외관은 왜곡되거나 서투르게 짜 맞추어진 그림판이 찢어져 있는 느낌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만들어진 덩어리는 재현성을 비껴갔고 등신대 조각의 그 육중한 사이즈에 반하는 가벼운 무게의 조각이었다. 요즘 진행하는 정교한 수준의 사진 조각과는 달리 내부 지지체가 아예 없거나 대략의 부피만 맞춘 간단한 철사로 내부를 지탱하게 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또 한편으로는, 사진의 매체적 고유성보다는 평면 이미지가 조각이 가지고 있는 부피로서 평면이 재형상화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였으며 그 표면 패치들은 흠을 만질 때 만들어지는 표면의 꿈틀거림처럼 이미지를 구현하는 사진을 더 부수적인 재료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조각이 된 사진은 여전히 얇은 평면이었다. 그래서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덩어리였다. 보다 촘촘해진 사진 패치와 더불어 특정 평면 이미지의 입체적 성격을 보다 견고히 하는 과정을 거치며 조각과 평면의 성격을 둘 다 충실히 드러내는 오늘날의 <사진 조각>이 만들어진 것이다.

2003년에 처음 등장했던 <플랫> 시리즈는 권오상 작가와 그의 동료작가와의 사사로운 장난에서 시작되었다. 광고 시계를 오려서 팔에 돌려보며 길길거리다가 문득 이런 방법이 작품으로 만들어지겠다는 아이디어로 찍어보았다면서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었다. 그것은 작가의 책상 위 장면이었는데 새로 나온 아이맥 컴퓨터가 놓인 책상 주변으로 잡지에서 오린 몇 가지 사진들을 책상 위에 세워놓고 다시 이들을 사진 찍어 출력한 A4 사이즈의 사진 이미지였다. 이 사진 속 이미지들은 실제 오브제와 광고 속 이미지를 오려서 세워둔 것들이 뒤섞여 있는, 현

실과 비현실이 묘하게 공존하고 있는 색다른 풍경 이미지였다. 이런 몇 장의 사진을 처음 보았을 때 본격적으로 사진으로서의 평면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한 <The Flat> 시리즈는 단순히 평면 사진으로 읽히는 작업이 아니었다. 사진 촬영을 위하여 많은 양의 잡지책을 모으고 그 속의 시계 혹은 보석 등의 광고 페이지의 이미지들을 오려내고 철사로 오려낸 이미지들을 지지하여 공간의 한쪽을 채우는 설치적 행위가 진행되었다. 이를 촬영하여 사진 평면작업으로서 제작되었고 디아섹 액자를 하여 물리적으로 무거운 평면을 만들어내더니 그 사이즈가 점점 더 커지고, 시계나 보석류 등으로 구분되었던 화면 속 이미지들이 점차 여러 종류의 오브제 이미지들을 뒤섞어서 구성한 이미지들을 만들어내고 거대한 사이즈의 액자를 덧댐으로써 프레임으로 구획되는 또 다른 공간이 만들어져 거대한 구조물로서 제시되었다. 그러자 이미지들이 나열된 화면 속 공간은 이미지로서의 환영적 공간에 덧붙여진 또 다른 레이어를 만들어내는 공간감을 획득하면서 평면의 고유한 성격을 반하는 모양새가 드러났다.

조각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는 정통 소조의 형식을 인용하는 <The Sculpture> 시리즈에서 견고하게 드러났다. 신발, 공구 등의 오브제들이 놓여 있는 테이블 전체를 흰색 지점으로 만들고 그 표면 위로 채색한 조각을 만들기 시작하였는데, 입체 작업에 입혀진 페인팅은 이 덩어리를 회화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효과를 주고 있었다. 손으로 지점토를 한점씩 덧붙여서 만들어진 표면의 질감은 채색과 코팅으로 마무리함으로써 마치 회화의 발색을 물리적으로 구현한 듯한 시각적인 효과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방법으로 브론즈 위에 색을 칠한 ‘토르소’ 시리즈와 ‘람보르기니’를 통하여 전통 형식의 조각과 회화의 교란을 시도해 보는 한편, 온전한 전통 소조의 형식에 일상의 오브제를 소재로 하여 현대성을 대입하고 있다. 이후 시도하고 있는 <New Structure> 시리즈에서는 그간 보여주었던 <The Flat> 시리즈에서 사용되었던 이미지를 실재의 공간으로 끄집어내었다. 이들은 원래 각종 패션잡지 속의 광고 이미지들이는데 이들을 거대한 크기로 확대하고 서로 지지하며 세워놓음으로써 기념비적 형식을 구축하였고 화면으로 보아온 이 이미지들을 확대하여 세워둔 형식으로 인하여 관객들에게 이 공간 속을 걸어다니면서 작가가 작은 코너를 활용하여 세워놓은 평면 이미지들의 레이어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현상학적 공간이 만들어졌던 것이다.

2016년 12월 16일부터 열린 스페이스 윌링앤달링에서의 <Relief>들은 작가가 골라낸 이미지들이 겹쳐지는 이미지들에 두께를 쌓으며 몹시 평면적인 부피감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리즈는 같은 해 여름부터 시작하여 아라리오 갤러리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시리즈로서 알루미늄 판에 이미지를 입혀서 구현하였던 <New Structure>들과 함께 전시하였었다. ‘부조(relief)’는 회화와 입체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여 평면 이미지의 전시 방식으로 뒷면이 없는, 한 면으로만 감상이 가능한 입체 작업이다. 사진과 조각을 혹은 회화와 조각을 아우르면서 조각적 실험을 지속해 오던 권오상 작가의 작업이 또 어떤 방법으로 변화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해볼법한 시기에 내 놓은 새로운 시리즈이면서 평면과 입체 간의 전통을 건드리면서 만들어온 앞서 만들어온 시리즈와 다르지 않은 관심을 또 다른 방법론을 통하여 드러내고 있는 시리즈이다. 월페이퍼라는 다국적 매거진 속에 소개되는 오브제들은 디자인적으로 뛰어난 고가의 브랜드들이다. 이들은 그간 작가가 선택한 오브제 이미지들이 주로 명품 컬렉션으로 등장하는 광고 이미지로부터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리 새롭지 않다. 반면 이번 전시에서 새롭게 등장한 형식인 이미지 자체가 프린트 되지 않은 온전한 나무 재질 자체의 작업인 ‘Relief’ 17번과 11번이 등장한 것도 단순한 평면 이미지 자체보다 나무의 두께와 그 중첩에서 발생하

고 있는 조각적으로 본질적 조형미를 고려하는 작가의 태도를 엿보게 한다. 이 오브제들은 그 자체로 조형미가 있다. <Relief>시리즈에 등장한 이미지들은 잡지에서 오려지고 나무 판넬 위로 그 모습이 거대하게 확대된 채 드러난다. 이런 과정에서 사진이었던 이미지는 그 질감의 변화를 일으키고 인쇄물로서 재현되었던 그 이미지가 또 다른 패턴으로서 분사되어 표면에 입혀짐으로서 전혀 다른 질감의 두께를 가진 이미지로서 만들어진다. 이들을 또한 서로 중첩되면서 하나의 구조물이 되는데 한 면만을 드러내는, 이전의 360도로 촬영되었던 '사진 조각'과 다른 형식으로서 입체화되었다.

권오상 작가는 명확하게 자신의 작업에 대한 방법론과 형식성에 대하여 밝힌다. 즉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서 보는 것 외에 숨겨진 의도나 의미를 따로 두지 않고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현대적인 이미지에 고무되어 있으며, 동시에 가장 고전적인 조형미에 매료되어 있다. 최근 그의 '사진 조각'들은 점점 고전의 조각들이 보여주는 조형미와 공간적 구성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동시에 21세기의 다양한 테크닉을 거리낌 없이 시도해보기도 하며 시각 예술에만 국한하지 않는 다양한 분야들과의 혼성적 시도를 통하여 다양한 관심사와 감각을 보여주기도 한다. 권오상 작가는 언제나 이미지의 아름다움에 경도되어 있으며 고전의 조형성에 대한 탐구를 지속한다. 눈을 현혹하는 아름다운 조각들에 매료되어 있으며, 아름다운 자동차, 오토바이, 시계, 가구, 신발 등 우리의 일상에 있는, 혹은 신격화 되다시피 하여 소비되는 이미지들에 대한 동경과 경외심 또한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가 선택한 월페이퍼 잡지 속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아름다운 오브제들의 이미지로 가득하다. 되돌아보니 대안공간 루프에서 처음 이 작가를 만났던 시기에 어린 작가였던 당시에도 권오상 작가는 꽤 멋쟁이었던 것이 떠올랐다.